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과 장 윤국섭	042-481-5182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박종필	042-481-3573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과 장 박용주	042-481-5063
	국제협력과	사무관 조아라	042-481-5008
 		2019년 3월 28일(목)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소

- 홍콩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공동으로 3월29일(금)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홍콩 KOTRA 무역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전담하는 「홍콩 해외 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KOTRA의 해외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중국, 베트남, 태국 등 8개국 14개소)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의 등록 절차가 상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담당 기관 등에 차이가 있어, 현지 진출기업들에게는 국가별 상황에 정통한 IP-DESK가 지식재산권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홍콩은 우리기업의 수출 지역으로 세계 상위 네 번째(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 3위, 일본 5위)에 해당하지만 IP-DESK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홍콩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고, 지식재산권 출원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는 점에서 이번 IP-DESK 개소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홍콩 IP-DESK는 위조 상품 유통의 국경조치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세관 등록과 우리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전문 인력을 통해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과 침해 대응 전략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3월 29일 오후 3시 홍콩 특허청의 데이비드 웡(David Wong) 청장과 한-홍콩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특허 및 상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허청장은 홍콩의 지식재산권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홍콩 세관도 방문하여 한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가짜 한국 상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한 홍콩 당국의 지속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박원주 청장은 “IP-DESK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이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해주는 든든한 수출 지원군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홍콩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홍콩 IP-DESK가 현지 진출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박종필 사무관(☎042-481-3573), 조아라 사무관(☎042-481-50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